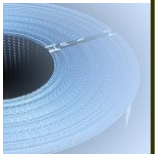


2007.7.23

POSRI CEO 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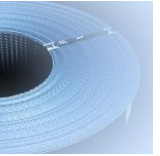
일본 제조업 투자회복 요인과 향후 투자 방향



철강연구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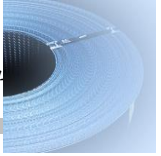
유승록

Executive Summary



〈일본 제조업 투자회복 요인과 향후 투자 방향〉

- '02년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내 투자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 또한 '04년까지의 침체에서 벗어나 재상승 국면에 진입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- 일본 제조업의 투자회복 요인은
 - 첫째, 적극적인 인력구조조정과 사업통합 등으로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이 150% 수준에 불과하고, 매출액 대비 3~4%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지속으로 기업체질이 2000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고
 - 둘째, 2000년 이후 연평균 1.3%에 불과한 낮은 임금 상승률과 엔저 현상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빠른 속도로 국제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이 10% 이상의 높은 증가가 계속되는 등 외부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,
 - 셋째, 정부정책이 공공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확장적 수요관리정책에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 효율을 제고한다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의욕이 크게 고조되었고
 - 넷째,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조업체의 제조능력 향상에 따른 경쟁력 향상, 기술보호 및 산업집적화 필요성 증대에 기인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-Turn 현상이 투자회복을 촉발시킴
- 향후 일본 제조업의 투자는 국내와 해외를 동시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
 - 국내에서는 신증설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
 - 해외에서는 범용품 생산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고, 투자지역으로는 최근 인도와 베트남이 중국 다음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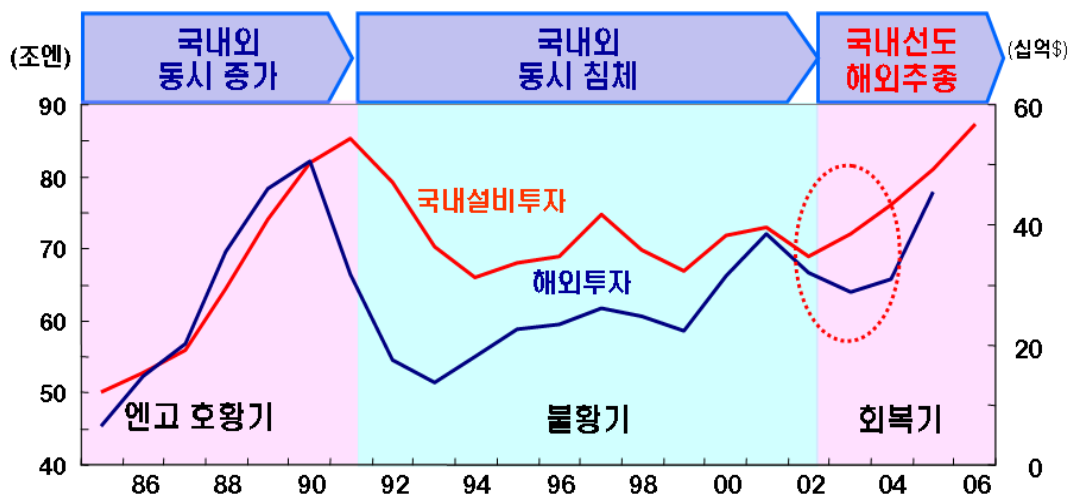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일본 제조업 투자 현황	1
II. 일본 제조업 투자 회복 요인	2
1. 기업체질 개선	2
2. 외부여건 호조	3
3. 정부의 민간 활력 제고	4
4. 제조업 U-Turn	5
III. 일본 제조업의 향후 투자 방향	6

I. 일본 제조업 투자 현황

- '02년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내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 또한 '04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

<일본 제조업의 중장기 투자 추이>



- 제조업 분야별로는 전기기계, 철강 등 전통 주력 제조업의 투자가, 투자 목적별로는 능력 증강 목적의 설비투자가 전체 투자회복을 견인하고 있음
 -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'02년 전년대비 -14.0%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어 '06년 증가율은 24.3%에 이르렀음
 - 제조업 내에서는 '06년 전기기계와 철강이 전년대비 40%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체 투자 증가를 선도하고 있음
 - 목적별 설비투자 비중을 살펴 보면, 능력증강 목적의 설비투자 비중이 최근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, '02년 동 비중은 39%에 불과하였으나 '04년 이후에는 46~47%에 이르고 있음

II. 일본 제조업 투자 회복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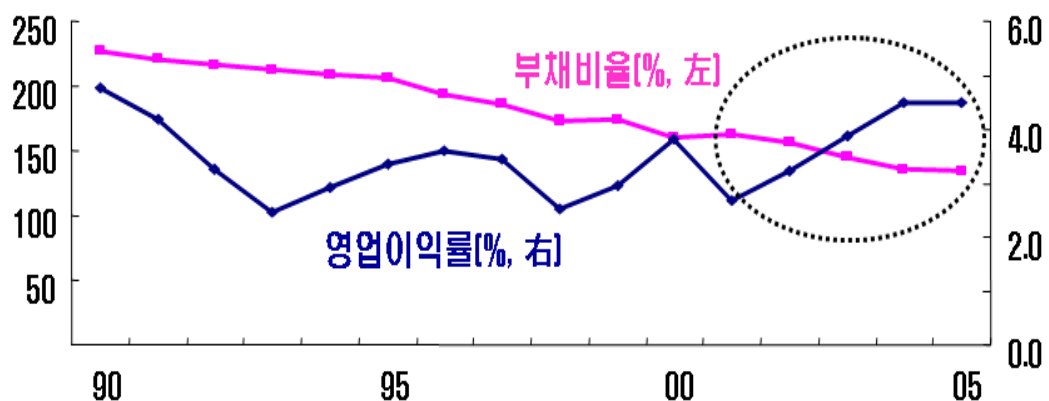
1. 기업 체질 개선

□ 일본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, 영업이익률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

○ 일본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990년 200%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,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50% 수준에 불과함

○ 반면, 영업이익률은 2000년 3%에 미치지 못하였으나,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2005년에는 4.5%에 이르고 있음

<일본 제조업 부채비율 및 영업이익률 추이>



□ 또한 인원감축, 사업통합 등을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기업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
○ 일본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2000년대 초 집중적으로 단행되었던 바,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제조업 전체의 인원은 12.6% 감소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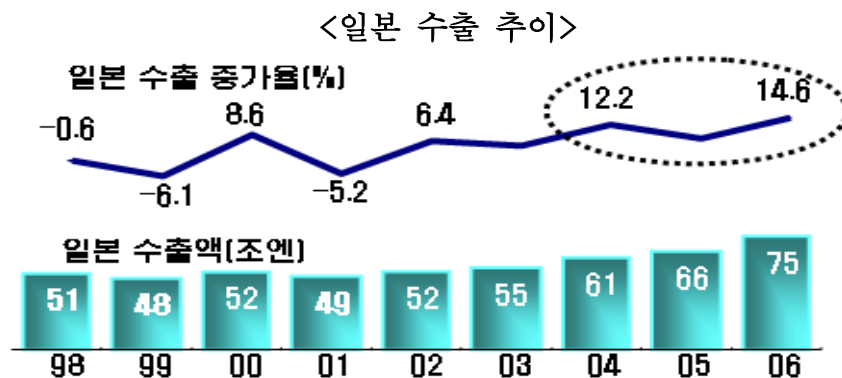
- 또한 기업간 대규모 사업 통합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,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반도체사업이 엘피다메모리로 재탄생되었고, 철강분야에서는 NKK와 카와사키 제철이 JFE로 통합되었음
- 일본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1990년 3.4% → 2002년에는 4.0% → 2005년 3.5%로 경기침체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

2. 외부여건 호전

□ 최근 엔저 현상의 지속과 낮은 임금 상승률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

- 2000년부터 2007년 5월 현재까지 엔화는 1달러당 107.8 엔에서 121.3 엔으로 12.5% 상승한 반면, 원/달러 환율은 오히려 1,131.1원에서 931.0원으로 17.7% 하락하였음 이에 따라 원/엔 환율은 26.9% 큰 폭 하락하였음
- 임금 상승률 또한 일본이 한국 및 중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일본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.3%에 불과한 반면, 한국은 8.4%, 중국은 12.5%를 기록하였음
- 환율 변화를 고려하면 임금상승률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, 환율변화 고려시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0.6%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5.4, 중국은 15.3%로 더욱 높아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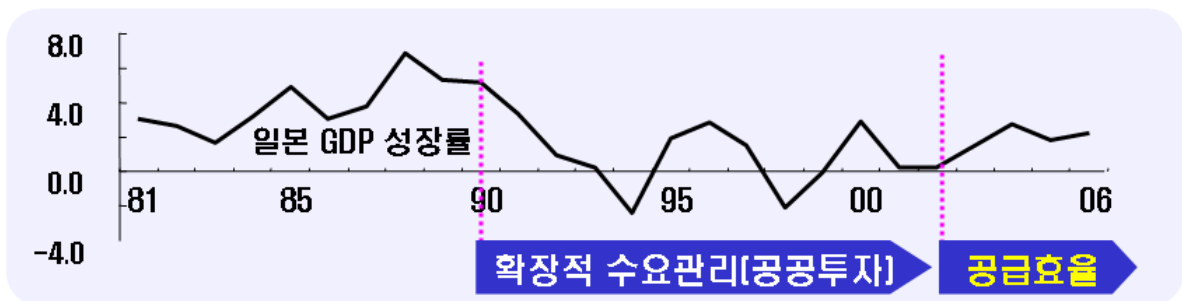
□ 일본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상승으로 최근 10%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



3. 정부의 민간활력 제고

- 일본 정부는 2002년부터 이전까지의 공공투자 확대라는 확장적 수요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효율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음

<일본의 GDP 성장률과 경제정책 기조 변화>



- 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하여 공장건설과 기업간 인수합병을 크게 활성화시킴
 - 공장등제한법(2002.7), 공장재배치촉진법(2006.7) 등과 같은 수도권 규제 및 환경관련 규제의 개정 및 폐지
 - 또한 고용대책임시특별법 등 노동관련 규제, 간이합병제도 등 기업관련 규제의 완화하였고, 지자체의 '구조개혁특구' 정책을 통해 2006년 9월까지 573개의 특구를 지정
 - 이러한 규제완화로 전국 공장착공면적은 2002년 8.5백만 평방미터에서 2006년에는 15.7백만 평방미터로 증가하였고, M&A 건수도 1996년 100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3500건을 초과

4. 제조업 U-Turn

□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였던 일본 기업들이 2002년 이후 국내로 회귀한 사례들이 국내 투자 회복에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음

○ 해외진출 일본 제조업의 국내 회귀는 다양한 산업에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다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□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생산기지를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인제조기술 등으로 인건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임

○ 캐논 사는 2003년 중국과 아시아에 있던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이전한다고 결정하였고, 이와 더불어 셀방식 및 무인제조라인을 통해 2004~2006년간 총설비투자(7,800억엔)의 80%를 일본에서 실시

○ 전자부품사인 오사다 사는 무인 제조시스템의 독자개발 및 도입을 통하여 2005년 나가노 시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전까지 중국에 위탁생산 하였던 것으로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였음

□ 기술의 융합화 및 복합화 그리고 원자재-부품-생산간의 network을 위한 산업클러스터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던 것도 국내 회귀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함

○ 소니 사는 현지 부품조달 애로 및 납기 지연으로 생산차질이 빈발하자 對美 수출용 8mm 비디오카메라의 생산을 2002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전하기로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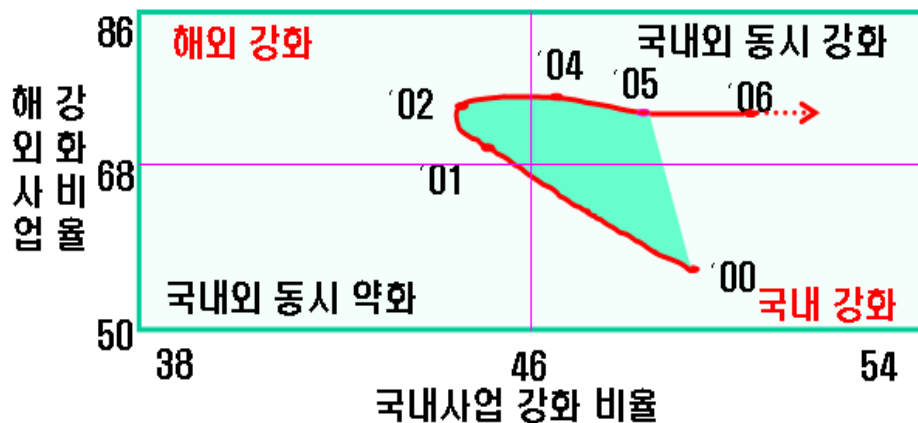
□ 기술유출 증가와 경쟁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함으로써 생산시설을 국내에 집중 건설함

○ 샤프사는 액정 패널 및 TV의 일관 공장 전체를 일본 국내에 설립함으로써 제조 공정 전체를 블랙박스화하고 있음

III. 일본 제조업의 향후 투자 방향

- 향후 일본 제조업의 투자는 국내와 해외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
 - JETRO 등 일본의 주요 기관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투자를 강화
 - 2002년 이후부터는 해외투자과 동시에 국내투자로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

<일본 제조업의 국내외 투자 방향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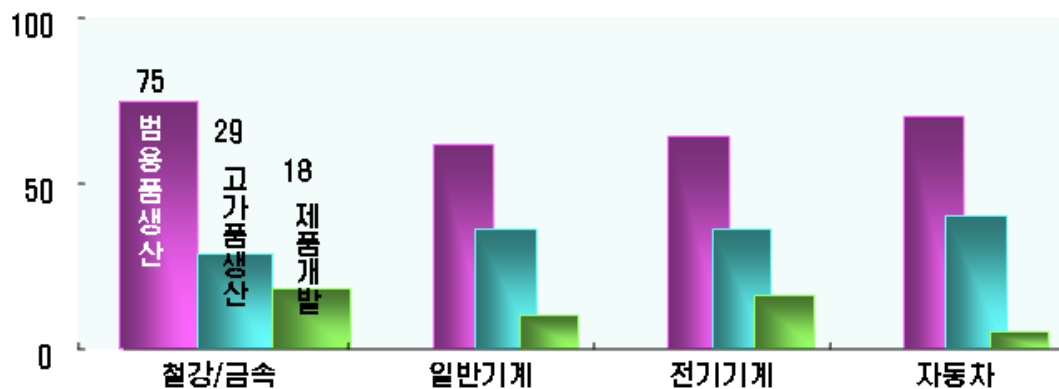
- 국내투자는 2005년 기준으로 투자채산(ROA-이자율)이 5%의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능력증강 중심의 높은 투가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임
 - 주요 제조업분야별로 살펴보면, 조선분야의 경우 미쓰비시는 2010년까지 400억 엔, 나가사키 조선은 향후 2년간 1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 - 철강산업은 2007년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18.6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일본제철은 전년비 15%, 스미토모금속은 무려 40.5%의 증가시킬 계획임

- 자동차산업에서 토요타는 연간 1조 5천억엔 수준의 설비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함

□ 해외투자는 범용품을 위주로 인도와 베트남 중심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- 제조업의 회귀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60% 이상이 해외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
- 그러나 국내는 고부가가치제품, 해외는 범용품 생산이라는 수직적 분업체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, 해외진출 철강/금속분야 기업의 75%가 범용품 생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문조사에 응답함

<일본 제조업의 해외투자 방향(응답비율 %)>



- 유망투자 국가로는 중국이 1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인도와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어, 소위 ‘China+ 1’이라는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투자 전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

유승록 (Tel 02-3457-8154, e-mail: srryu@posri.re.kr)